

# 한우랑사과랑 축제 14일 팡파르

16일까지 장수읍 의암공원  
레드벨벳 등 초호화 가수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완료

지역의 특색을 축제 테마로 이미지화한 대한민국 최초의 Red Color Festival,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막이 오른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2018 문화관광부지정 육성 축제 및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인 '제12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장수읍 의암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 첫째 날인 14일 개막 축하공연에는 히트 곡 '빨간 맛'의 주인공 걸그룹 레드벨벳이 화려한 막을 연다.

레드벨벳과 함께 더 이스트라이트, 알리, 박현빈, 현수, 김범룡, 오로라 등 초호화 가수들이 공연장을 뜨겁게 달군다.

둘째 날 레드라 페스티벌에서는 마야, 서문탁, 왁스, 디라나의 공연으로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의 특색을 축제 테마로 이미지화한 대한민국 최초의 Red Color Festival,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막이 오른다.

며, 마지막 날에는 어르신들의 흥을 돋워줄 트로트 콘서트가 펼쳐져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축제에서는 ▲적과의 동침, ▲사과나무시체험, ▲플라잉 애플 체험, ▲동물농장 체험, ▲승마 체험, ▲물고기잡이 체험, ▲비눗방울 체험, ▲RED 유등 만들기, ▲농촌공방 체험마당 등 체험 프로그램과 ▲장수한우 품평회, ▲향토음식거리, ▲페이스페인팅&풍선아트, ▲세계문화

거리, ▲어린이 놀이마당 등 상설·기회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길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즐거움 가득한 문화공연을 즐기며 청정 농축산물 체험에 빠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축제장을 찾은 모든 이에게 웰빙 오감만족을 선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미래 밝히는 청소년 목소리 귀담다

무주, 움직이는 자치행정 구현  
학생 12명과 정기간담회 열어

무주군이 움직이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민선7기 무주군이 출범과 함께 공헌한 소통행정을 실천하는 움직임이어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관내 4개 중·고등학교 학생 12명으로 구성된 제10기 청소년 참여위원회(위원장 살천고 2년 김찬우 학생) 회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학생들을 위한 자율학습 공간 신설, ▲청소년 교통시설 개편, ▲반딧불이체육관 옆 야외 소공연장 보수, ▲영여 실생활 회화 프로그램 신설, ▲청소년 진로진학 대책 마련 등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고 아이디어가 기반이 된 정책들이



무주군이 움직이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련돼 실현된다면 그것이 바로 무주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군 청소년들을 대표해 제안해 준 사안들은 꼼꼼히 검토해 필요에 맞게 반영이 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지역 내 청소년(만 9세~24세) 12명으로 구성)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권리 인권 모니터링과 개선안을 제안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상·하반기 청소년 참여위원회회의의 간담회를 정기화시킬

방적으로 실생활에서 우리나 청소년들의 생각이 민선 7기 정책 속에 어떻게 담겨 빛을 발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청소년 참여위원들은 "우리들이 직접 느끼고 필요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어른들이 있어 기분이 좋다"라며 "우리 친구들이 멀리 도시로 가지 않고도 무주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걸 느끼며 싶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하늘에서 즐기는 축제 '기대만발'

장수, 열기구·점핑벌룬  
월드체험 프로그램 진행

열기구를 타고 축제 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험이 장수에서 최초로 진행된다.

장수군은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열기구와 점핑벌룬을 이용한 '장수 월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수 월드체험'은 전북 최초 열기구 체험으로 열기구를 이용해 하늘로 올라가 행사장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 부스는 한누리전당 앞 주차장에 마련됐으며, 소액의 이용료(성인 5,000원, 초등학생 미만 유아 3,000원)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제1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는 7개 분야 64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관광객들을 장수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장수군의 아름다운 청정 자연을 체험하고, 잊혀가는 농촌의 전통문화를 일깨워줄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점검과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 청렴한 건설문화 조성 앞장

군 종합감사기간, 관계자 교육  
110여명 참석 업무역량 강화

진안군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해 전북도 감사관실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종합감사 기간인 11일 진안군 산악초터운에서 건설관계공무원 및 건설사업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관계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도 감사관실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건설사업 및 인·허가 업무 추진 중 부조리 근절 및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청렴건설문화 정착, ▲올해부터 달라진 건설공사 관련 규정, ▲감사 반복 지적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중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 예방감사다. 이에 전북도 감사관실은 감사 기간인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군청 강당 종합감사장에서 '사전컨설팅감사 현장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관계 공무원들과 사업 관계자들은 "관행적 선물이나 향응 수수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청렴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임을 알고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주지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지난 10일 의정자문위원회를 열어 위원들로부터 군민들의 올바른 뜻을 듣고, 무주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의정자문위원회는「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10명의 위원들로 새롭게 구성됐다. 이날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들의 다양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청취했다.

특히, 제8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자문위원들은 무주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인구감소 등 시급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책적인 제안도 아끼지 않았다.

이광환 의정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의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군민들의 뜻을 잘 담아 소통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실시

진안군은 11일 라돈측정기 6대를 구입해 9월 중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진안군은 최근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는 17일부터 시작하며 진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진안군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과 함께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면 순서에 따라 대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납은 사용 후 3일 이내 하면 된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라돈의 권고기준은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과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48Bq/m이하이며,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200Bq/m이하이다.

군 관계자는 "라돈 측정결과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는 라돈 발생 의심 제품을 제거하고, 수시로 실내공기를 환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무주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2019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운영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으뜸관광,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 실현에 기반을 둔 ▲무주군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계획과 ▲무주 레포츠 타운 조성, ▲예체문화관 리모델링 등 16개 부서에서 발굴한 192건의 시책을 공유하며 의견을 내었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기반한 아이디어로 업무혁신을 이루는 것은 무주군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길"이라며 "시책이 발굴에서 끝나지 않고 조직과 지역발전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을 진행해 유용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우수 시책은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빛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함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